





##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마르코 4, 26-34)

### 복된 사람들

배영길 베드로 신부

님의 손으로,  
님의 마음으로,  
잘 차린 자리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  
복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우리 또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자리.  
복된 사람들입니다.

천주교 신앙을 뿌리깊게 가지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사춘기가 지나며 도통 하느님의 존재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늘 죄인이 되는 느낌에, 종교를 가진다는 게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는 반항심이 극에 달해 종교 선택의 자유를 달라 외치며 전투적으로 냉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년을 하느님을 부정하며 원망과 증오가 가득찬 채 혼자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며 콧대 높게 지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보다도 더한 밑바닥에서는 희망이나 절망을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아예 제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아무 것도 모른 채, 껍데기 뿐인 몸뚱이만 빛 한줄기 없는 캄캄한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을 느끼던 그 시기에 하느님은 저를 다시 부르시고, 바위보다 단단했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회복의 시간. 제 인생 속에서 저를 사로잡고 있던 상처들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느님과 화해하며 관계가 건강하게 재정립되고, 그렇게 비로소 신앙은 완전히 제 삶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때가 떠오릅니다. 잔뜩 화가 나 하느님을 부정하고 십년이나 도망 다니던 제가 수녀가 되어 하느님 곁에서 살겠다는 뜨거운 부르심을 느낄만큼 바뀌어간 그 여정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느님 곁에서 수도자가 되어 살겠단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되어 하느님의 사업에 협력하며 살게 된 이 여정 역시 어떻게 이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모든 과정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분이 뿌려 놓은 작은 씨앗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이 터서 자랐다는 것만 믿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뿌려 놓은 작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터서 자라 큰 가지들을 뽐냅니다. 하늘의 새들이 우리의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되도록,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크게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겨자씨가 되어 모든 걸 그분께 내맡기고 잘 자랄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멘.



##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Fides ex auditu)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탈출 2,23) 고통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하느님께 전해집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후 모세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먼저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그들이 울부짖기 전에 미리 도와주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나서야 도와주셨을까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느님은 잘 모르실까요? 하느님 뜻을 모두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사랑을 평소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이 고통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는 행복보다 큰 탈 없는 삶이 더 큰 행복일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발견한 네 잎 클로버가 행운이라면, 늘 곁에 있는 흔한 세 잎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기에, 아무 일 없는 일상이 가능했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도 얻었습니다.

신앙에서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로마 10,17)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듣는 것을 무엇보다 중하게 여겼기에,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이스라엘아, 들어라!)을 자주 암송하며, 머리와 가슴에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만이 진정한 하느님이시니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하느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 하는 신앙 행위이고, 듣는 것의 중요성은 그리스도교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신앙이란 듣는 것이고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은 하나로 결합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에는 그분 얼굴을 뵈고자 하는 갈망과 연결됩니다. 특히 요한 복음서에 신앙은 듣는 것이며 보는 것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처럼 (요한 11,45 참조), 예수님 행적을 보는 것은 믿음에 선행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요한 11,40)는 말씀처럼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라고 고백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마리아 막달레나 역시 제자들에게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요한 20,18)라는 결정적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느님을 보여주고 비춰주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빛’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2 코린 4,6)

나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출처: 서울 주보 | 그림- 바오로말콘텐츠>



과학 칼럼

우리는 우주의 첫 순간부터 함께 해온 존재들이다!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우주 안에 껍살 한 덩어리 안에 는 수억 년 전 한반도에서 살던 공룡 존재하는 모든 기본 입자들은 빅뱅 직후에 생겨났으며, 빅 의 몸을 구성하던 원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작년 5월에 뱅 이후에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호흡을 통해 받아들인 산소 원자가 실은 2000년 전 예수 (예를 들어, 전자는 절대로 새로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습 님이 내뿜은 이산화탄소 분자 안의 산소 원자일 수도 있다 니다.) 즉, 우리 각자의 육체를 구성하는 모든 전자, 양성자, 는 것입 니다. 갑자기 놀랍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공룡이 중성자들은 138억 년 전 빅뱅 직후의 시점에 만들어진 ‘바로 나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기 2022년의 대한민 그것들 ’이라는 점을 물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수억 년 전의 생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들 안 에 있는 원자 내 전자, 양성자, 중성자들은 138억 년 전 빅 뱅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 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물, 하늘의 구름, 우주 저 바깥의 목성 주변을 도는 위 성 역시도 138억 년 전 빅뱅으로 만들어진 기본 입자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따르면 “천지의 창조주” 이신 하느님 께 서는 무한한 창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끊임없는 입자 창조 대신에 138억 년 전의 빅뱅을 통한 단 한 번의 창조를 통해 이 모든 기본 입자들 을 만드셨고 그

결국 물질적인 관점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사실상 우주 의 첫 순간부터 함께 해온 존재인 것입니다! 즉, 우 리의 육 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관점에서 볼 때 우 리 모두는 빅뱅과 함께 출현한 존재, 세상 만물의 창조 와 함께 이 우 주 안에서 생겨나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138억 년 된 입자들로 구성된 육체를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 고 현재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는 그 입자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의 육체에서 분해되 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 무언가의 육체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먹은 삼

명체 내지는 성경에서나 뵈던 예수님과도 물질적으로 연 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따르면 “천지의 창조주” 이신 하느님 께 서는 무한한 창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끊임없는 입자 창조 대신에 138억 년 전의 빅뱅을 통한 단 한 번의 창조를 통해 이 모든 기본 입자들 을 만드셨고 그 입자들의 ‘재사용’(recycling)을 통해 우주 만물이 물질적 으로 구성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어제 버린 비닐봉지와 스티로폼을 구성하 던 그 원자가 불과 100년 뒤 우리 후손의 몸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 니다. 이는 우리가 환경 문제,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물질도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습니 다. 그것들 모두가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체나 다른 하찮은 물건이나 모두 동일한 시점에 만들어진 ‘고귀 한 재료들’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출처:서울주보>



**알파레타 2 구역 점심 봉사**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해주신  
알파레타 2 구역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꾸리아 월례 회의**



**“환영합니다!” 새신자 모임**



**청년 미사 후 저녁 식사 봉사**  
청년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6월 9일 (연중 제10주일)					
교중미사(10:00am)...	246명	주일헌금 .....	\$4,303.00		
아침미사( 8:00am)...	100명	교무금 .....	\$7,250.00		
영어미사(11:45am)...	21명	감사헌금 .....	\$ .00		
청년미사( 5:30pm)...	53명	안젤라 펀드 .....	\$ .00		
미사참례 총 .....	420명	성물방 .....	\$148.00		

교무금 명단					
강용조(6)	나창섭(6)	설재규(6)	이상호(6)	정재희(1~6)	허석호(5,6)
김연복(6)	박영섭(6~9)	손영덕(6)	이석균(6)	조성환(1~6)	황등현(6)
김영근(6)	박재석(5,6)	양경직(6)	이수진(6)	최문석(1~6)	
김영기(5,6)	박재영(6)	양태현(6)	이수진(6)	최인영(6)	
김영배(6)	박평하(6)	오상수(6)	이종상(5,6)	최준태(6)	
김용준(6)	방남규(5,6)	원동훈(6)	이준복(6)	한규향(6)	
김종욱(6)	배광욱(6)	윤석진(6)	이창호(6)	한성인(6)	
김주희(6)	배정희(6)	이강연(6)	임혜수(6)	한성희(6)	
김중환(6)	서상희(6)	이경우(6)	장승희(6)	한재만(6)	
나영숙(6)	서인원(6)	이상엽(5)	장인욱(5,6)	한찬욱(6)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영홍	박근우	서미영	양경직	이경우
강성태	김원봉	박남준	서상희	양경환	이동춘
강용조	김일환	박남철	서용원	양국일	이복화
고창민	김주희	박두환	서재욱	양재준	이봉조
곽흥배	김진용	박미헬	서혁규	오경옥	이석균
김 훈	김태규	박송자	석대진	오규형	이성철
김경숙	김향순	박영자	설재규	오상수	이수진
김남우	김현길	박재석	성정창	오현정	이승구
김대용	김호수	박재영	소종선	왕복실	이종길
김루시아	김홍섭	박정미	손영덕	원동훈	이주미
김면기	김희연	박종흠	손철영	원용방	이창호
김미자	나창섭	박찬규	송경자	유경애	이준복
김미혜	남기원	박평하	송무남	유선아	이현두
김봉섭	남상우	방영택	송용덕	유성열	이현옥
김상순	남현석	배광욱	송창률	유영한	이홍규
김성강	문명재	배정훈	심충섭	윤종현	이훈철
김세경	민병선	배정희	심호용	윤석진	장민재
김영길	민수종	백현숙	안금환	윤성진	장해선
김영철	민주미	서동민	안승범	이건수	전 흥

교무금 새로 약정 하신 분					
강비호	김홍자	박영희	안용주	이동현	임재형
강세진	도한익	박정원	오명혜	이수진	임창현
고영호	문명재	방남규	오재찬	이세철	장윤아
고창민	문병호	배진희	우장희	이은경	장해선
고창영	문쌍국	서영범	유경애	이 완	차유경
김덕자	문은숙	서정애	윤지영	이창욱	최규복
김영배	민수종	석영길	이강연	이치선	최문영
김용준	박경미	스티브조	이길종	이현옥	최승원
김용학	박병호	심재숙	이동선	임용택	최제인

교무금 약정하신 분중에 신자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자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4년 6월9일 (연중 제10주일)	
교구 할당액.....	\$ 62,000.00
달성률 .....	42.51%
약정액 .....	\$ 20,750.00
누계 납부액.....	\$ 26,357.00
금주 납부액.....	\$ 705.00

2023 AA 기금 납부자			
김용준	배정희	이종길	한성인
김재경	서동민	이종상	한재만
박근우	서재욱	최준태	한춘하
박정애	손철영	한규향	

금주 후원금	
소성당 리모델링 기부금	
교육분과, 꾸리아, 성모회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교무금 내실 때 월 표시, 이름, 신자번호를 기재	
• 2024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6/15(토) 오후 5:30	김주환	양지혜 김관호	이성규
6/16(일) 오전 8:00	이경환	김대용 김월수	양다현 김아론
6/16(일) 오전 10:00	박미헬	고근배 고숙영	성리디아 김소현 박시윤
6/16(일) 오전 11:45	양다해	김나현 김소현	전지우 이윤후
6/22(토) 오후 5:30	이성규	이익준 이상아	김주환
6/23(일) 오전 8:00	황윤숙	한찬욱 한은열	박시은 박시현
6/23(일) 오전 10:00	김현숙	김연주 박성미	박재효 남소호 전지우
6/23(일) 오전 11:45	Sara Park	성리디아 정범진	양다현 하혜지

본당 캘린더	
6월 23일	• 뉴난 공소 미사

패밀리미사 안내	
• 6월과 7월은 패밀리미사가 없습니다.	

26/27대 사목위원 이취임식	
• 6월 23일 (일) 교중 미사중	

소공동체 첫 반장 모임	
• 일시: 6월16일(일) 11:45am	
• 장소: 소성당	
• 문의: 성당사무실 770-455-1380	

망치회 김밥, 컵라면 판매	
• 일시: 6월 16일 (일)   • 장소: 친교실	
• 문의: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망치회 정기총회및 장궤를 보수 작업	
• 일시: 6월 16일 (일)	
• 정기총회: 교중미사후   • 장소: 친교실	
• 장궤를 보수작업: 영어미사후   • 장소: 대성전	

등대회 정기모임 안내	
• 일시: 6월16일(일) 11:30am	
• 장소: 성가대연습실(2층)	
• 문의: 은 전 베네딕도 404-308-0322	

피에타 성가대원 모집안내	
하느님 찬미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성가대원,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이정란 안젤라 770-401-5375	

겨자 씨

스테파노의 겨자씨 묵상한들

성경 구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겨자씨는 우리가 실 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식료품입니다. 사실 겨자 씨라는 단어로는 좀 낯설지만 머스타드라고 하면 좀더 시각적으로 확 다가올까요. 아무래도 이런 저런 소스로 뿌려먹는 머스타드 소스가 바로 연상 될 수 있기 때문일겁니다.

그 겨자씨가 커져 풀이되는데 그 풀이 거의 나무 수준으로 자란답니다. 그래서 말은 풀이지만 그 숲은 거의 나무 숲처럼 울창해지기도 한다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서 겨자씨의 뿌여짐이 자주 인용이 되었나 봅니다.

살다보면 매해 풍요롭고 기쁜 시간이 되지만은 않을겁니다. 때론 가물고, 때론 바람맞고, 때론 비에 잠기지요. 다만 소망하는 건 그 안에서 키워지는 나의 겨자씨가 그저 당신의 손길 안에 있음을 그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그리하여 새들 깃들여 노래하는 쓸만한 나무로 자랄수 있음을 기억하게하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아침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사노라면 스테파노 https://brunch.co.kr〉

2024년도  
로사리오 평생 대학 새학기 등록

• 등록 일시: 4월 14일부터


• 등록 장소: 친교실/성당 사무실

• 새학기 개강일: 2024년 5월 7일

• 문의: 박미헬 404-819-9227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2024-2025학년도  
대건 한국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만4세) ~ 12학년


• 수업기간: 8월10일~12월7일(16주간)

•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 특별수업: 미술, 태권도, 동요, 무용, 서예, 난타

•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등록원서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바오로딸콘텐츠〉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선숙(모니카)	이금숙(세실리아)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수진(브렌다노)
김창영(루가)	장종순(도미니카)
루영래(세실리아)	정창래(방지거)
민병숙(라파엘라)	조갑득(마리아)
박덕자(빅토리아)	조경희(글라라)
박정자(데레사)	채종현(아모스당)
박종리(히야친타)	최대일(프레드릭)
박평하(요한)	최순례(아나타시아)
안정주 (소피아)	James Almeida

골프 레슨 안내	
• 접수: 6/2(일) ~ 6/9(일)	
• 대상: 초급반 (6명), 중급반(6명)	
• 레슨일시: 초급반 6/21(금), 중급반 6/22(토) 시작	
매주 9am~11am (약 10주간 예정)	
• 장소 : Northcrest driving range	
• 강사 : 최지남 요셉 프로	
• 문의: 친교분과장 남기원 요한 404-966-1919	

골프 레슨 1회 비용은 \$200이며, 수업 중 일부는 Driving Range로, 나머지는 성당에 기부됩니다.

상급자반은 추후 별도로 편성하여 Browns Mill Golf Course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Youth summer camp  
유스 섬머캠프

• 일시: 7/18(Thu) ~ 7/21(Sun)

• 장소: Pine Eden Camp site Hamilton, GA

• 대상: Rising 9th - Seniors

• 참가비: Early registration(5/12-6/1) \$185

Regular registration (6/2~) \$200

• 문의: Stella Kim 679-979-8145

2024 KMCC VBS  
Vacation Bible School



Bring your friend !!

• 대상: PreK - Rising 6th(age 4 or older as of August 31)

• 일시: 7/26(Fri)-7/28(Sun)

7/26(Fri) 5pm-8pm, Dinner included

7/27(Sat) 2pm-5pm Snack included

7/28(Sun) 11:45am(Mass)-5pm, Lunch included

• 신청비: First child \$40, Sibling \$35

• 우선등록 마감 : 6/30(Sun)

• 장소: KMCC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 문의: 정지윤 Cecilia (VBS coordinator)

408-878-5426 Cjjung@gmail.com



REGISTRATION

PROMISE TO PROTECT




PLEDGE TO HEAL

도움과 치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드리기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에들란타 대교구는 학대 또는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Archdiocesan 24-hour Abuse Reporting hotline: 1-888-437-0764



Georg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ivision of Family and Child Services (DFCS): 1-855-GA CHILD (+1 855-422-4453)